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1/9 통권 1596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최초의 고객이다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금융위원회 자료)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세과 과세된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한 추가 컨설팅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안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율>

소득종류	개인소득수취자		법인소득수취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기본 누진세율	소득세×10%	해당없음	좌동
퇴직소득	기본 누진세율 (연분연승법)	소득세×10%	해당없음	좌동
사업소득 (봉사료)	3%(5%)	0.3% (0.5%)	해당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좌동
일반 기타소득	20%	2%	해당없음	좌동
열거 기타소득	60% 비용인정 후 40%×20%=8%	0.8%	해당없음	좌동
금융 이자소득 (+투신이익 배당등)	14%	1.4%	14%	1.4%
비영업대금이자	25%	2.5%	25%	2.5%
배당소득	14%	1.4%	원천징수 안함	좌동
금융사 이자수입	해당안됨	좌동	해당안됨	좌동
연금소득	기본 누진세율	소득세×10%	해당안됨	좌동
양도소득	원천징수 해당안됨	좌동	해당안됨	좌동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6호 / 주간 45호

2022. 11. 09.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율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금융위원회 자료)	2
C E O 에 세 이	CEO는 최초의 고객이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프로모션 상품 교환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인기업의 가족회사 전환시 기대되는 절세 효과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	9 10
직 장 인 Survival	슬럼프를 이기는 7가지 방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 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 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 -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 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231, 2022.03.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 과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한 추가 컨설팅 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안됨	12
세 무 정 보	-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5 40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제약 ·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금융위원회 자료)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새로운 회계처리 감독지침	기존 적용 관행
지침의 성격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존 기준의 유권해석은 아님 : 각 합리적 근거에 따름	
회계개념근거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의 미래 입장	제조업 중심 입장
회계처리 방법	미래지향적 신산업에 부응, 불확실성 해소	보수주의로 비용 반영
임상상 개시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객관적 제시, 자 산처리 가능	주로 당기비용 처리
라이센스 부분만의 매각대가 수익 인식	라이센스 매각 먼저 수익인식 가능 (① 제3자도 기술수행 가능 ② 임상시험 의 확신 제공)	라이센스 부분만 매각수익인식 불분명
추가판매 승인	추가판매 승인 위한 개발활동비 : 자산처리 가능	타국 추가판매 지출의 비용처리
개발활동재고원가	경영진의 의도대로의 직접원가재료비 : 자산처리	재고 투입의 당기비용화
특허권 양도이익	주된 영업활동이면 영업손익으로 표시	영업외손익 표시
기대효과	거래고유특성에 맞게 적절 반영	지나친 보수주의

CEO는 최초의 고객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성공하는 CEO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최초 고객이어야 한다. 기업의 역사가 50년이 넘는 장수기업 크라운 제과의 창업자 백포(白浦) 윤태현(尹台鉉)회장의 경영철학은 한결 같았다.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고객은 내 자식만큼 소중했다. 그야말로 한 평생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과자 공급에 몰두했다. 생전의 윤회장은 누구보다 앞서 새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도 매일 매일 최초 고객 입장에서 시식하고 점검했다. 위암으로 입원한 병실에도 수많은 과자 샘플들이 즐비했다. 임종직전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의당 고객도 크라운 제과를 사랑하고 신뢰했다. 그것이 장수기업 크라운 제과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명품도 고객 입맛에 따라야

이름을 내걸면서 도도한 명품(名品)도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변신해야 한다.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들도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들을 향해 변신하고 있다. 신에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광고전략을 바꾸는 등 성형수술과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고 있다. 1828년 설립된 고급 화장품 겔랑도 2003년 새해 ‘해피로지’란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기존의 무거운 크림에 비해 한결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제품이다.

‘우리 엄마가 쓰던 화장품’ 이미지에서 ‘내가 쓰는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20~30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다. 버버리는 상품자체가 트렌치 코트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쓰일 만큼 유서 깊은 영국 브랜드다. 100년 넘게 고수해온 체크무늬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바 체크’를 적용한 비키니 수영복과 미니스커트를 과감하게 내놓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버버리는 ‘어머니의 코트’에서 ‘여자 친구의 섹시한 패션 브랜드’로 변신에 성공했다. 당연히 매출도 매년 30%씩 꾸준히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술보다 비즈니스 중심 기업문화

한 때 한국의 대표적 전자회사인 D사의 ‘탱크주의’가 널리 사람 입에 오르내렸다. 기술개발 위주의 기업문화 때문에 고객의 요구보다 쓸데없이 많은 신기술을 덕지덕지 붙여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을 고객이 필요한 핵심용도만을 존중하여 강하고 튼튼하게 또 편리한 상품으로 고객만족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탱크주의다.

한 달에도 수십가지가 새롭게 쏟아지는 요즘의 휴대폰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갖가지 과도한 기능을 붙인 바람에 그것이 필요 없는 고객조차 불필요한 바가지를 쓰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르쥬 튀릭(Serge Tchuruk)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학, 전기, 전화 사업체인 알카텔 알스톰(Alcatel Alsthom) CEO의 키를 넘겨 받았다. 그의 구조조정은 두 가지 기본 영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조직구조를 세계화하고 한결 시장 지향적인 기업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기술지향적인 문화가 특징이었던 알카텔 알스톰에 고객지향의 사고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R&D 부문은 그 자체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을 따르려하기보다 역으로 시장을 좌지우지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R&D와 사업기획을 밀접하게 연결했다. 그리고 단순한 제품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고객만족보다 기술개발자체에 대한 맹신을 경고하는 세르쥬 튀릭의 증언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8일(금)	10월 31일(월)	11월 1일(화)	11월 2일(수)
미	달 러 (USD)	1418.10	1419.30	1422.20	1421.70
일	본 엔 (JPY)	969.91	961.19	956.97	960.90
영	국 파 운 드 (GBP)	1640.81	1645.96	1631.55	1632.54
캐	나 다 달 러 (CAD)	1045.87	1042.91	1044.74	1043.18
홍	콩 달 러 (HKD)	180.66	180.83	181.19	181.12
중	국 원 (CNH)	196.77	195.94	195.20	193.88
유	로 화 (EUR)	1413.92	1413.34	1405.70	1404.07
호	주 달 러 (AUD)	915.60	908.49	911.42	909.18
싱	가 폴 달 러 (SGD)	1006.07	1005.92	1004.84	1005.0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0.76	300.54	300.80	300.13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 Q**
1.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관련 법규나 예규 알려주세요

- A**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 Q**
-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 A**
-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Q 당사는 A회사에게 a제품을 판매하고 A회사는 a제품을 B회사로 판매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a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제품에 대해 클레임 대응을 하고 발생한 불량제품 운송비 및 제비용을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여부?

A 매출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클레임대응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고 일종의 배상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업체는 귀사에게 공문 등으로 클레임 대응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귀사는 공문 등을 근거로 배상이나 보상성격으로 해당 금액을 보내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로모션 상품 교환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한시적으로 교환권을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합니다.
단순 교환권 개념으로 1년 내에 교환 가능 연장 안 되고,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금액이 남으면 환불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상품권이 판매되면 매출이 아니라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 발생 하면서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데, 이번 교환권은 판매시점에 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교환권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은 비용 처리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환권사용시점에는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

A 교환권 자체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상품권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세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인 증여자가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증여받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에서의 증여계약을 원용하였으며, 여기에다 민법상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 중에서 증여의제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증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따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즉, 기존의 민법에 열거되었던 구체적인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의 이전되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증가가 있다면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 30%이상 증가된 경우 증여세 과세됨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의 상승이란 재산 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정보나 도움 등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등이 증여나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그 상승금액이 30% 이상 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하게 된다(상증법시행령 제32조의3).

〔사례 1〕 형질변경

- ① ‘A는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천평, 시가 1억원)를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
- ② 형질변경후 토지면적 : 800평(시가 20억원으로 상승)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증가분(18.7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
- ③ 가치증가분 계산 > : 18.7억원(㉠ - ㉡ - ㉢ - ㉣)
- ㉠ 형질변경후 토지가액 : 20억원
- ㉡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 1억원
- ㉢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 10%(1억원×10% = 1천만원)
- ㉣ 형질변경 소요된 비용 : 2천만원

〔사례 2〕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 ① 甲은 父가 대주주로 있는 A법인(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A법인의 주식을 취득②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A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됨(상장후 주가 100억원)
- 甲은 父가 대주주로 있는 A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甲은 A법인의 도움(자금대여)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그 시세차익(9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즉,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란 ①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②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③ 재산의 가치가 3억원 이상 상승하거나 30%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을 말하며, 그 가치증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1인기업의 가족회사 전환시 기대되는 절세 효과

1. 전환 후 법인 주식 상속시
- 상속세 부담 감소
2. 전환 후 법인 청산시
- 배당소득세, 상증세 부담 감소
3. 전환 후 법인 주식 제3자 양도시
- 양도소득세, 상증세 부담 감소



법인세법 인하 방안과 세금감소 추정액

정우택 의원안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
세수 감소 규모 : 5년간(2023~2027년) - 29.8조원	

배준영 의원안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세수 감소 규모 : 5년간(2023~2027년) - 13.1조원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

항목		증감
자본의 사용자비용(%)		-3.89 (0.1385 → 0.1331)
투자(10억원)	총투자	49,053.7
	국내투자	25,439.7
	순유입(외국인투자 - 해외직접 투자)	19,751.5
	해외직접투자	-6,946.4
	외국인투자	12,805.2
	순송금(수입 - 지급)	3,862.5
	지급	-1,087.1
	수입	2,775.3
GDP	연평균(2023년)	1.4(2.1)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원)	상한	797,365
	하한	619,004

(한국경제연구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종류와 세액공제 차이

본인적립금형 (세액공제용)	구분	퇴직금형 (퇴직금 수령용)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립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운용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저축연금소득세(3.3~5.5%) 과세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율의 7% 과세



슬럼프를 이기는 7가지 방법

1. 생활 속도를 늦춘다.

슬럼프가 닥치면 스스로 ‘슬럼프가 왔구나’ 라고 판단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생각해 본다. 회복될 때까지 꼭 해야 할 일과 시급한 일을 제외한 사소한 일들은 뒤로 미룬다.

2. 핸드폰을 꺼 버린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급하지 않은 일들로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요함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3. 정신적인 휴식을 갖자.

슬럼프가 왔을 때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액티브’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새로운 자극에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이다.

4. 독서로 자신과 대화하라.

여행관련서, 박물관이나 역사책, 자기 계발서, 정상을 향해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접 하며 내면 세계를 다듬는 시간,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5. 몸을 움직여라.

바깥에 나가서 빠른 속도로 걸어 보라. 심신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유쾌해지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6. 따뜻한 물로 목욕하라.

운동을 마친 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반신욕을 할 수도 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원기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7.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라.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의복을 입고 그 동안 열심히 뛰어온 자신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라. 슬럼프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끌어올려 보라.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한 추가 컨설팅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안됨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
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

질 의

-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회 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
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
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이하 "기존건물")의 취득
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
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
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
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
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항임

서면법규재산-6686, 2022.03.10

질 의

-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
(일명 "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
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
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
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
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614, 2022.02.25

질 의

-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

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231, 2022.03.30

■ 질 의

-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을 영위 중인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이하 "B법인")를 설립(100% 자회사)
- B법인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인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

관(이하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대부채권을 양수(매입)하여

- '14.*월 B법인이 매입한 채권의 평가 및 채권관리 등을 질의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을 관리사로 선정하고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하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 대부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B법인은 A법인에게 대부채권과 관련하여 B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채권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 A법인은 B법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감독하도록 함

질의

-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대부업 등록)를 설립하고
- SPC와 대부채권관리 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회 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이하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기 전 알림 메시지 보내드려요... '11월 1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

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달말까지 기한 후 신청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한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기 신청했을 때는 100% 온전히 받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는 장려금은 10% 감액해서 지급된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국세청, 2022. 10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회 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22. 10. 27. ~ '22. 11. 30.)
	근로자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22. 12. 1. ~ '23. 1. 19.)
	회 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23. 1. 21. ~ '23. 3. 10.)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 예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맞춤형 안내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근로자에게 공제항목 개별 안내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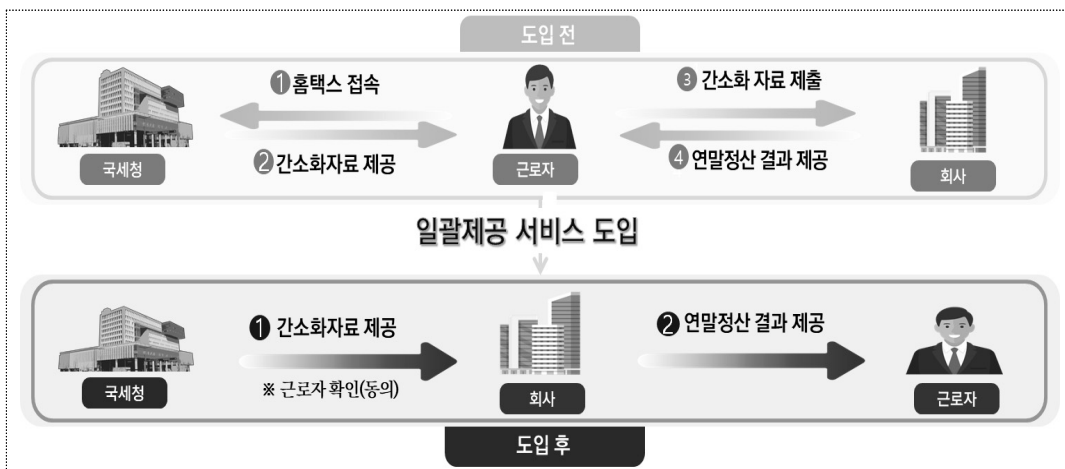


I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1. 개요

-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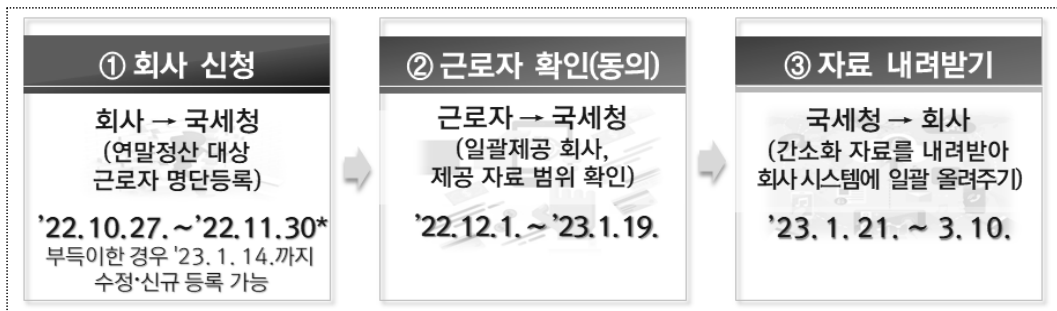
2.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0. 27.부터 '22.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2. 11. 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①'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③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



회사 신청

- 서비스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0. 27.부터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명단 등



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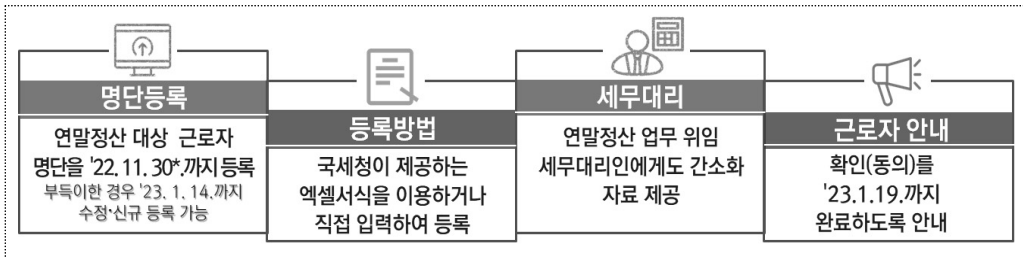
-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입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등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입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입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또한,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사 신청 주요 내용 |



근로자 확인(동의)

- 근로자는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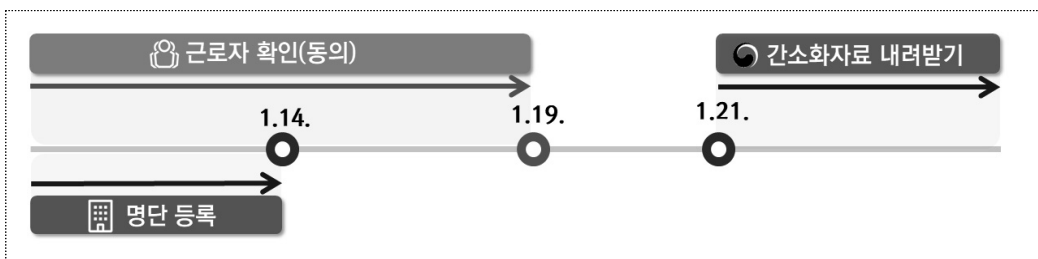
| 근로자 확인(동의) 주요 내용 |

 확인(동의) 이행  에서 '23.1.19.까지 확인(동의)절차 진행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23.1.19.까지 삭제
--	--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23. 1. 21.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3. 1. 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 여 명)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 부양가족이 '23. 1. 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자료 내려받기 주요 내용 |





3. 회사 사전 준비

- ☐ 일괄제공받은 PDF 압축파일을 회사시스템에 일괄 올려주기 위해서는 회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 * 연말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프로그램
 -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 및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번 없이) 126 ⇨ ①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
 - ** 샘플 테스트용 간소화자료 제공, 일괄 올려주기 개발 방법 안내 등

4. 유의사항

- | [회 사]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
| <input type="checkbox"/> | <p>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1. 30.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input type="checkbox"/> | <p>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는 일괄제공된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번호(숫자 4자리)는 홈택스의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근로자] |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간소화자료 삭제 |
|--------------------------|---|
| <input type="checkbox"/> | <p>근로자는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23. 1. 19.까지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일정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2. 10. 27. ~ '22. 11. 30.* *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22. 12. 1. ~ '23. 1. 19.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23. 1. 21. ~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3. 1. 21. ~ 3. 10.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II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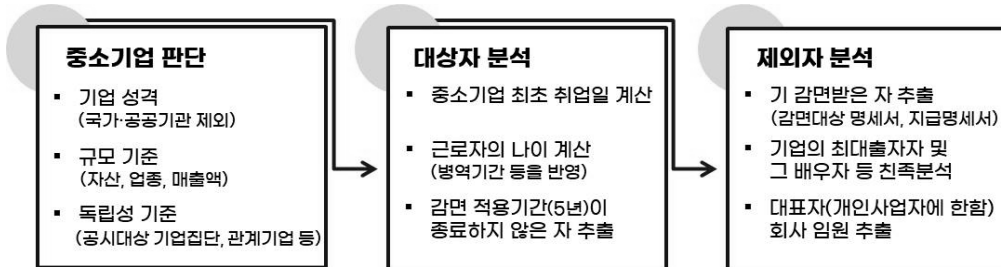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절세 사례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세액 비교
<p>◆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남편 총급여 7,500만 원·신용카드 3,000만 원, 아내 총급여 5,000만 원·신용카드 1,500만 원)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p> <p>■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 (세액 5만 원 감소)</p> <p>■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 (세액 9만 원 감소)</p> <p>※ 평균 실효세율 6% 가정</p>	

-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안내 대상자」 분석 흐름도 예시 |



2.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 올해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 세액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10.31.)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안내 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800만 원의 연봉(총급여)을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250만 원으로 가정)
분 석	<p>중소기업 해당여부: 연령요건(병역기간 반영), 최대 주주·가족 분석, 감면이력 분석</p> <p>총급여 요건: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 임차여부 등 분석, 공제이력 분석</p> <p>A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p>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예시 (공제요건·혜택, 구비서류 안내) <p>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세액공제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절 세 효 과	<p>☞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213만 원 (①+②)</p> <p>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150만 원*</p> <p>* Min (산출세액 250만원 * 감면율 90%, 연간 한도 150만 원)</p> <p>② 월세액 세액공제 : 63만 원 (연간 월세 지출액 420만 원 × 공제율 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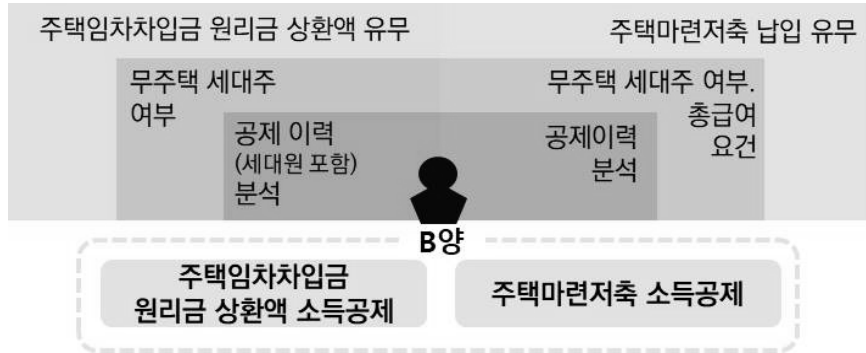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대상

사례

- B양은 3,400만 원의 연봉(총급여)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대출금과 이자로 60만 원을 갚고 있으며,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이력이 없습니다.

분석



안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예시 (공제요건·혜택, 구비서류 안내)

(Step.01)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4) 2030청년 맞춤형 안내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한도 적용

절세효과

- ☞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23만 원 $[(①+②) \times \text{평균 실효세율 } 6\% \text{ 가정}]$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 연간 원리금 상환액 720만 원(60만원 * 12개월)의 40% 소득공제
-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 연간 납입액 240만원 가정 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이용하기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합니다.
 -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각 공제항목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 (TIP)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인적공제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 연도별 인적공제 변동현황 (단위 : 원)

귀속년도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액		
						6세 이하	자녀(기본)	출산·입양
2019	1,500,000	0	0	0	0	0	0	0
2020	1,500,000	0	0	0	0	0	0	0
2021	1,500,000	0	0	0	0	0	0	0
2022(예상)	1,500,000	0	0	0	0	0	0	0

절세TIP (공제 요건)

①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 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유의할 사항 (주요 과다공제 유형)

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예시)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 연도별 보험료공제 변동현황 (단위 : 원)

귀속년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장애인전을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장애인전용)
2019	0	0	0	0
2020	0	0	0	0
2021	0	0	0	0
2022(예상)	0	0	0	0

절세TIP (공제 요건)

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여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주요 과다공제 유형)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 회사에서는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편리하고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회사 신청 방법(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 ②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정보, 비밀번호, 세무대리인 제공 동의 여부 입력 후 저장
- ③ 두가지 제출 방법(직접입력, 엑셀파일) 중에 선택
 - ㉠ 직접입력 제출: 신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자료 추가하여 제출
 - ㉡ 엑셀파일 제출: 엑셀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엑셀자료 올리기 제출

참고 2 -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 ☐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 선택
- ②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절차 이행여부 등 확인 가능 → 근로자 개인별, 근로자 전체로도 조회 가능

참고 3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 신청순서

- 1단계: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 2단계: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 3단계: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총괄부서 사용자 및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승인

□ 1단계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총괄 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 ①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선택
- ② 부서사용자ID 신청화면에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선택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 선택
- ④ 신청자와 일괄제공 도입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아이디 신청하기 선택

□ 2단계 :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ID 신청하기

- ①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홈택스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선택
- ② 부서사용자ID 신청화면에서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선택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 선택
- ④ 신청자와 일괄제공 도입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아이디 신청하기 선택

□ 3단계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총괄부서 사용자 및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승인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My 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①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선택
- ② 「My 홈택스」 화면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관리」 선택

- ③ 승인하고자 하는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또는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선택
- ④ 사용자 아이디 상태를 “미승인” → “사용”으로 변경 후 저장하면 승인 완료

참고 4 -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삭제 방법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바로가기 가능

- 간소화 개통일(1. 15.) 이전부터 가능한 삭제 방법
 - [공제항목별]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발급기관별] 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간소화 개통일(1. 15.) 이후에만 가능한 삭제 방법
 - [개별건별] 조회된 상세 자료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 ② 세가지 삭제방법(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 건별) 중에 선택
 - ㉠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삭제할 공제항목을 선택(여러 항목 동시 선택 가능)하여 삭제 신청
 -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자료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삭제 신청
 - ㉢ 개별 건별 삭제 신청: 조회된 자료를 선택 후 삭제 신청(23. 1. 15. 이후)

참고 5 -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서비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일괄제공 PDF파일 내려받기 선택
- ② PDF 내려받기 화면에서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하기 선택
- ③ 생성된 PDF파일 선택하여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참고 6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뉴얼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원] 홈택스 회원 접속[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비회원] 홈택스 비회원 접속[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접근 방법(회원용)

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홈택스 화면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 접속 후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용 가능함

○ 접근 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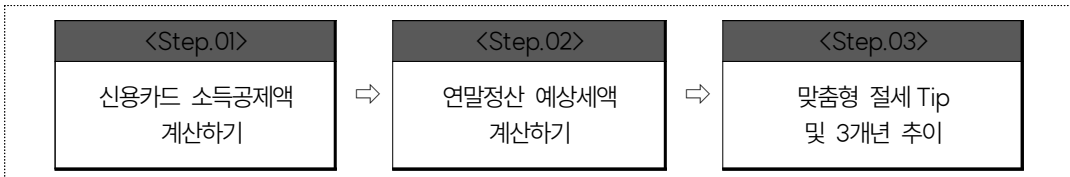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설명

□ 초기화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2030 근로자 안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대상자인 경우 초기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임

-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입력 순서]

-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입력 순서]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Step.02>로 가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임
 -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과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

[입력 순서]

-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의료비 등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입력 순서]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 및 수정방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田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② 해당항목의 田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됨 (항



목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③ 해당항목의 대상금액란에 금액을 입력

④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짐

(예시)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田 선택 (①) → 보장성보험료 田수정 버튼 선택 (②) → 공제대상금액 입력 (③) → 「적용하기」 버튼 선택 (④))

[공제한도 등 확인방법]

- ①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②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 항목별 한도미달액은 추가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 ③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④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 ☐ <Step.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와 함께 제공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항목별 절세(Tip) 및 유의사항 안내
- ☐ 연말정산요약란(Tap)에서는 연도별 총급여·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현황과 명목세율·실효세율의 비교, 공제항목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Step.02> 계산 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데이터(그래프)로 보여줌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
 - 소득·세액공제별 금액과 데이터(그래프)를 연도별로 보여줌
- ☐ 공제항목별란(Tap)에서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 및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 *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참고 7 -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 ☐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요건, 혜택, 구비서류 등 안내
- ☐ 안내 대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 시 팝업이 게시되며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Step.04)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화면으로 연결됨
 - 탭을 클릭(①)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 나타나며, 항목별로 田을 선택(②)하면 공제요건, 혜택, 연말정산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
 -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⑤ 교육비 세액공제
 - ⑥ 월세액 세액공제

참고 8 - 예상 질문 및 답변(Q&A)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 15]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0월 27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4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5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6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8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9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 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됩니다.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11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12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신중히 고려하여 삭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4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아이디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그 다음,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 * 홈택스(공동인증서 접속) → 마이 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신청한 아이디를 선택 후 승인
- 연말정산 대행업체는 발급받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16~22]

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용 가능

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8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9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 적용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2. 10. 27.(목)~11. 18.(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 (2004.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2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Step.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確定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조회 관련 23]

23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2022. 10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 2021과세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조특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10% 이상	20%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 투자확대를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2. 11. 30.(수)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 예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 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국세청, 2022. 10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 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 1. ~ 11. 30.)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❶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❷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❸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자격 점검표」 참조)
- (가구 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 12. 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홀벌이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요건) 2021.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취를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① 쿼알코드 신청 (이용시간: 06시 ~ 24시)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쿼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③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④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큐알(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손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앱

- 올해부터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손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②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선택한 후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 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11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고 1 -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신청 기간

구 분	소 득	신 청 기 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2021. 9. 1. ~ 9. 15.
	2021년 하반기	2022.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연간	2022. 5. 1. ~ 5. 3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연간	2022. 6. 1. ~ 11. 30.



□ 신청 현황

(만 가구)

신청 안내			신 청			미신청
합계	반기	정기	합계	반기	정기·기한후	
552	227 ¹⁾	325	530	227	303 ²⁾	22

1) 반기신청 안내자 중 미신청자는 정기신청 안내대상에 포함하여 다시 안내 (반기안내 = 반기신청)

2) 2022년 10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만 가구 포함

□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가 구	금 액
합 계	494	49,382
반기·정기신청	489	48,860
2022년 6~8월 기한 후 신청 등	5	522

□ 가구당 평균 지급액

(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¹⁾	근로장려금 ²⁾	자녀장려금 ³⁾
110	102	86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평균

2)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3) 자녀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참고 2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례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 5.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 11. 30. 까지)이며, 2022. 12. 1.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 3 |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4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③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① 큐알(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③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전화하여 도움 요청

사례 5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 서류를 붙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거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붙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 9월, 2022년 3월), 정기(2022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7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장려금이 많은 사람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8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례 9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